일본 우익사상의 부흥과 '좌우합작'*

조관자**
joa@snu.ac.kr

Contents

Ⅰ. 우익의 부흥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Ⅱ. 좌·우익의 출현과 천황제 쟁점
Ⅲ.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는 역사인식
Ⅳ. 우익사상의 출로와 '좌우합작'
Ⅴ. 우익사상의 역사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Ⅰ. 우익의 부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차 아베 정권(2012.12-)의 등장 이후,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숨은 우익(隠れ右翼)'들의 발언이 연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1] 2010년 이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가열 속에서 '우익'을 금기시했던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의 세계적인 반미 풍조 속에서 '반미 보수'와 '넷우익'이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역사수정주의가 세력을 얻으면서, 아시아 침략사와 전후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우익'과 '우익사상'을 긍정하는 현상도 짙어졌다. 전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역사적 진보에 대한 반동'으로 공격당했던 보수와 우익이 일본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변혁' 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21세기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보수 진영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413-2011-2-A00001)

** 서울대 일본연구소 HK교수.

1) "[막나가는 아베 정권] (상) 이어지는 망언 릴레이"(아주경제, 2014.02.24.) http://www.ajunews.com/view/20140224140754405 (검색일:2014.06.0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그러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우익 성향의 소신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정치인들은 아직도 '우익'이란 낙인을 반기지 않는다. 1960년과 1970년 안보투쟁에서 '파시스트, 군국주의, 테러, 배외주의, 정치 폭력단'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진 우익은 탈정치화 사회에서 꺼림칙한 존재로 터부시되어 왔다.[2] 정치적 테러와 결부된 우익 이미지는 고도소비사회의 생활평화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게임기 밖으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가 철퇴를 맞듯이, 우익은 언더그라운드의 비가시적 존재로 활동하거나 가두선전차 안에서 움직였다. 아사히신문은 우익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우익의 부상과 대중화를 억제시키려는 듯했고, 산케이신문조차 사회 혼란을 가져올 과격한 우익의 출현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성 언론에 불만을 갖고서 2000년대 이후 보수·우익 계열의 잡지와 채널이 증가하기도 했다.[3]

냉전시대 일본에서 좌·우익, 보수·혁신으로 불리는 진영의 내부는 여러 갈래의 이념적 색채와 조직으로 갈려 있었지만, 시대정신을 지배하고 담론을 생산하는 주도권은 혁신·좌파에게 있었다.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냉전시대 일본인의 '정신적 분단 상황'을 설명하면서 좌익(한자 左翼)과 그에 동조하는 사요쿠(가타가나 サヨク), 그리고 보수를 배치한다.

> 일본에서 냉전은 영토가 아닌 우리 일본인의 정신에 38도선을 긋는 식으로 나타나, 사상적으로 이분된 일본인이 혼재되어 싸우는 양상을 나타냈다. 공산주의를 좌익이라고 한다면, 인권과 평등과 약자·소수자를 절대 정의로 삼고, 반권력과 반국가의 이데올로기에 기울기 쉬운 사람들을 사요쿠라고 부르자. 좌익과 사요쿠의

2) 우익의 반공활동과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堀幸雄(1993)『戦後の右翼勢力』,増補版;勁草書房,pp.137-143. 안보투쟁이 격화된 1960년대에 좌익과 우익은 폭력적으로 충돌했다. 기시 노부스케 정권은 우익과 연계하여 데모대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시 수상에 대한 습격사건도 발생했다. 과거 전범 내지 가두선전차의 폭력단 이미지와 겹친 우익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되었다. 신좌익의 저항적 순수성에 대한 공감도 1972년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막을 내리면서, 폭력적 저항은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게 되었다.

3) 2004년부터 보수, 우익 진영의 토론 프로그램 제작 및 동영상 배포를 전문으로 삼는 '일본문화채널 사쿠라(日本文化チャンネル桜)'가 탄생하고, 기성의 보수계열 잡지『文芸春秋』,『諸君!』,『正論』에 더하여『SAPIO』(1989년 창간)와『Vioce』(1997년 창간), 그리고 2000년대에『Will』,『わしずむ』,『表現者』가 창간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심정은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에 확실히 뿌리박혀 있었다. 매스컴이나 문화인, 학자, 법조계 등 모든 지식인층뿐 아니라 체제 측인 자민당 정치가들 안에도 사요쿠의 심정이 들어 있었다. 이들이 일본인 정신의 38도선 북측에 있었다면, 남측에는 이 나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키려는 보수적 심정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도 좋다.[4]

인용문에는 좌익에 대응하는 우익이 없다. 1950년대부터 일본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을 궁극의 가치로 여기는 자칭 우익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존재했건만, 그들이 '보수'로 언급될 뿐이다. 1953년생인 고바야시 자신이 1990년대 중반까지 부락민 차별문제, 옴진리교 사건, 에이즈약물피해(HIV) 사건과 같은 사회문제를 만화로 비평했던 '사요쿠'였다. 스스로도 '반미보수'로 자칭하는 고바야시에게 우익은 비가시적 존재이거나, 테러와 연결되는 부정적 존재일 것이다.

한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도 2010년 도쿄도지사 인터뷰에서 "일본의 우익은 벌써 소멸했다"고 발언한다.[5] 자민당의 친미적 태도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후, 1999년부터 도쿄도지사로 연임 당선되며 거침없는 태도를 보인 이시하라가 자신의 '우익' 정체성을 부인하기 위해 꼼수를 부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우익'은 무엇인가. 이시하라는 "건전한 테러리즘이 없는 나라에 건전한 내셔널리즘도 없다"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1925-1970)의 발언을 빌려온다. 자위대의 쿠데타를 기도하고서 할복한 미시마를 끝으로 '건전한 테러리즘'이 사라진 일본에는 더 이상 애국주의도 내셔널리즘도 없으며, 가두선전차의 폭력단은 있어도 "우익은 없다"는 것이다.

미시마와 절친했으며 우익 테러리즘의 '건전성'을 긍정하는 이시하라(1932년생)와 전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으며 우익 용어 자체를 회피하는 고바야시(1953년생)는 반미의 공통된 입장을 취하지만 그 태도는 서로 엇갈린다. 일본에서도 우익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시대와 개인의 이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우익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의미도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우익과 보수의 구별 없이 '보수우익'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에서는 '우익'을 자칭하

4) 小林よしのり(2000)「あとがき 羞恥からの成長」,『ゴーマニズム宣言9』幻冬舎文庫, p.160.
5) 石原慎太郎(2010) "日本の右翼はとっくに消滅している" (도쿄도지사 인터뷰 기사 중에서). http://www.metro.tokyo.jp/GOVERNOR/ARC/20121031/tvkb2200.htm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거나 지칭하는 세력이 시대에 따라 변했고 지금도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진폭도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전후 일본에서 우익은 어떻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의미 전환을 꾀하며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좌우합작'이란 새로운 관점에서 전후 일본의 우익사상이 부흥하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좌우합작'이라는 용어는 좌우 양익의 현상적 대립과 배제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 포섭의 관계를 포착한 개념이다. 여기에서 이념적 지향성과 조직적 당파성이 강한 경우에 '좌·우익' 용어를 취하고, 그에 대한 동조세력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포함하여 '좌·우파'로 칭한다. 전후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은 무력 충돌까지 벌였다. 하지만 전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볼 때, 1945년 이전에 반미투쟁의 '원조'인 우익과 1945년 이후에 반미투쟁의 '후예'인 좌익의 결합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하 본론에서는 먼저, 1920년대 좌익과 우익의 출현에서부터 천황제 쟁점이 형성된 과정과 1930년대 이후 아시아의 우익활동에서 나타난 '좌우합작'의 면모를 고찰한다. 우익사상은 일본의 점령 상태와 한국전쟁(일본에서는 '조선전쟁'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음)을 거치고, 냉전과 탈냉전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의미를 갱신하고 변화했다. 본론의 후반부에서는 하시카와 분조, 하야시 후사오, 아시즈 우즈히코, 다케우치 요시미, 마쓰모토 겐이치가 전후의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우익사상을 역사화 하는 과정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Ⅱ. 좌·우익의 출현과 천황제 쟁점

일본에서 좌익과 우익이란 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77년 '프랑스 혁명사'에 관한 서적이 출간되면서부터다. 그 용어가 일본의 정치세력을 지칭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중반으로, 당시 레닌의 볼세비키즘을 추종하는 공산당의 창건으로 좌익의 활동과 분열이 두드러진 상태였다.[6] 일찍이 1897년에 임금인상을 요구하

6) 浅羽通明 (2006)『右翼と左翼』,幻冬舎, 제2장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노동운동이 발생한 일본에서 190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이 활발해졌고, 1910년대에는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이 국가와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했다.[7] 하지만,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한 1920년대에 비로소 자본주의 근대화를 비판하는 좌·우의 이론적 대응과 대중적인 조직 운동이 본격화하고, 그 대립각도 선명해진 것이다.

1925년 보통선거 실시를 계기로 좌익은 의회제 민주주의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민주주의와 비합법 혁명투쟁을 중시하는 공산당으로 분열되었다.[8] 1922년에 결성된 일본공산당이 1924년 해산한 후, 사회민주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등의 분파로 나뉜 것이다.[9] 1926년에 재건된 공산당은 1927년 코민테른의 '일본 문제에 관한 테제'를 수용하면서 혁명노선의 대중적 관철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그 내용은 짜르(군주)를 타도한 소련 혁명에서처럼 군주제 타도를 일본 혁명의 핵심 임무로 제시하고, 사민주의를 '사회파시즘'으로 공격하는 한편, 노농쟁의와 예술대중화 등의 대중투쟁을 벌이는 것이었다.[10] 이처럼 제2차 공산당의 창건으로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 방법이 명시되면서 '좌경'이란 말도 등장한다.

---

7) 1904년에 '공산당선언'이 번역(平民新聞, 第53号)되고, 1910년대에 사회주의와 사회정책에 관한 문헌도 번역, 저술된다(ドルワル・ド・レゼー(1911)『社会主義ト自由思想』教学研鑽和仏協会訳, 教学研鑽和仏協会).; 清水澄(1911)『社会主義ト社会政策』東京 : 博文館.). 민간 차원에서 사회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가 오하라 마고사브로(大原孫三郎)는 1919년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大原社会問題研究所)를 건립한다.

8) 사민주의의 역사는 공산당보다 앞섰다. 1906년 일본사회당, 1920년 일본사회주의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1922년 공산당 결성에 참가했으나 공산당으로부터 해당분자로 비판받았다. 사회민주주의계열은 보통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1925년, 무산자의 합법정당으로서 農民労働党을 창당한다. 1926년부터 무산자 그룹 내부에 좌우대립이 벌어져 좌파는 労働農民党, 우파는 社会民衆党, 중도파는 日本労働党으로 분열한다. 増島宏, 高橋彦博, 大野節子(1969)『無産政党の研究 : 戦前日本の社会民主主義』法政大学出版局.

9) 이들은 일본혁명의 성격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일본자본주의 논쟁'을 시작하는데, 사민주의는 노농파로 결집하고 재건한 공산당은 강좌파로 불리게 된다. 강좌파는 노농파가 천황제와의 투쟁을 회피한다고 공격한다. 양자의 논쟁에 대해서는 조관자(2010),「'사회과학·혁명논쟁'의 네트워크 : 일본자본주의논쟁 (1927-1937)을 중심으로」,『한림일본학』 제17집 (2010. 12) 참조.

10) コミンテルン 編,世紀書房 訳編(1951)『日本共産党テーゼ : 22年,27年,政治テーゼ,32年,50年テーゼ』世紀書房. 일본공산당은 비합법정당으로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등 대중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929년 대량검거(4·16사건)로 잡지 발행을 못하는 등 타격이 컸으나, 1935년까지 중앙 조직을 유지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30년에 출간된『모던용어사전』은 좌익을 “혁명주의를 신봉하는 단체”, 우익을 “좌익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동단체”로 표기한다.[11] 공산당의 혁명론에서 볼 때, 우익에는 천황제의 국체를 지키려는 천황, 관료, 군부, 경찰, 지주, 자본가, 신도와 국학 사상에 관련한 단체 및 지식인들이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 무산자(노동자 농민) 운동 내부에서도 좌우의 분열이 일어나고, 1920년대 국가사회주의(파시즘)는 군부 내 청년장교의 유신사상과 천황을 신앙하는 농촌의 공동체 운동으로도 유입된다. 1932년 코민테른의 일본 테제에서 천황제 타도가 재차 명시되자, 지하 활동을 지속하던 공산당이 대량 검거되고, 1933년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공산당의 대량 전향이 일어났다. 이후 1930년대 후반에 사상담론을 생성하는 주도권은 우익과 전향한 좌익에게로 넘어갔고,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 국가의 정치적 기제로서 천황의 위상은 절대화된다.

한편, 1920년대부터 활발해진 농본주의는 흑룡회의 아시아주의 및 ‘소화유신’ 세력의 국가사회주의와 결합하면서, 전후에 일본 우익사상의 기본 이념으로 주목받게 된다.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농본주의는 원래 아시아의 전통적 이념에 부합하고, 지주와 농민층으로부터 조세(地租)를 거둬들이는 근대국가의 존립 이념에도 합당한 사상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공황이 닥치자, 자본주의 공업화에 반대하는 반근대적 농본주의가 발흥하고 농촌자치론이 부상한 것이다. 곤도 세이쿄(権藤成卿, 1868-1937)는 1920년『황민자치본의(皇民自治本義)』를 저술하여 사직(社稷) 자치론을 펼친다. 사직은 고대 중국에서 천자나 제후가 새로 건국할 때 제사를 지내던 토지신과 곡신을 이르는 말로, 그 자체가 나라와 조정을 의미한다. 아시아주의자들과 교류한 곤도의 사상은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기타 잇키(北一輝)의 일본개조론과 아시아부흥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12] 아시아적 농경 생활에 기초한 공동체론이 자본주의적 근대국가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제사장인 천황의 직접 통치로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개혁의 이상을 추동하게 만든 것이다.

11) 麹町幸二編 (1930)『モダン用語辞典』実業之日本社.
12) 滝沢誠(1971・1996),「権藤成卿」『松岡正剛の千夜千冊: 歴象篇0093夜』,ぺりかん社. 인터넷판 (2000.07.17.), http://1000ya.isis.ne.jp/0093.html(검색일:2014.06.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농본주의자들은 1929년 세계 대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정치적 테러에 직접 관여하거나 만몽개척에 참가했다. 농촌의 근로학교인 애향숙(愛鄕塾)을 설립한 다치바나 고자부로(橘孝三郎)는 1932년 우익 테러 (5.15사건)에 가담한다. 농촌출신의 청년장교들은 병농일치의 국가개혁을 꿈꾸며 황도(皇道) 구현을 위해 군부 쿠데타(1936년 2.26사건, 우익은 소화유신으로 호칭)를 기도한다. 농업학교를 창설하고 농업 교육과 무도(武道) 교육의 결합을 주장한 가토 간지(加藤完治)는 '만몽개척이민'의 이주 책임자로 활약하고 '만몽개척 청소년의용군 훈련소'를 건립한다.[13] 이처럼 1930년대에 농본주의의 다양한 정서와 실천이 국가사회주의와 부합하고, 대륙 경영에 동원된 것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농본주의와 아시아주의를 포함한 우익 세력은 전범으로 소환되고, 부활한 일본공산당은 다시 '천황제 타도'를 중심 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천황의 직접 통치에 의한 '일본개조' 및 '아시아 향토공동체'의 실현을 주장했던 아시아주의자들은 오히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방해하고 천황의 통수권을 찬탈하여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책임을 돌렸다.[14] 우익 국수주의는 천황제를 일본 문화전통의 진수로 옹호하고, 공산당은 천황을 국가권력의 수뇌로 지목하는 만큼, 전후에도 천황제 문제는 좌우 양익의 대립에서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미국이 상징천황제를 승인하고 일본공산당이 의회제 민주주의를 수긍하는 역사적 흐름에서 천황제와 전쟁책임 문제도 희석된다. 그 와중에도 천황제를 둘러싼 논쟁과 테러는 지속되었지만,[15] 1989년 쇼와천황의 사후, 일본 국체의 정수로서 전쟁을 수행했던 권위와 권력의 실체로서 천황 문제는 공중에 부양된 셈이다.

일본공산당 지도부 중에서도 '사랑받는 공산당'이란 슬로건을 제시한 노사카

13) 中村薫(1984)『加藤完治の世界 : 満洲開拓の軌跡』 不二出版. 한석정, 노기식(2008)『만주 동아시아의 융합 공간』,소명출판, p.203.

14) 중국에서 활동한 아시아주의자와 관동군(이시와라 간지), 그리고 동아협동체론의 전향 좌익은 도조 히데키와 대립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익의 반근대적 아시아 혁명론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근거로 활용된다. 오카와 슈메이가 도쿄재판에서 도조 히데키의 뒷통수를 치는 장면이 유트브에서 회자된다(東京裁判 - 東条英機の頭をはたく大川周明).

15) 1961년 2월 우익단체(大日本愛国党)에 소속된 소년K가『中央公論』의 연재소설「風流夢譚」의 불경(不敬) 논쟁을 지켜보다가, 중앙공론 사주의 자택에 침입, 가정부를 살상한 시마나카(嶋中) 사건이 발생. 堀(앞의 책,p.152)는 이 사건이 전후 언론의 황실보도 자세에 위협적 영향을 미쳤고 중앙공론사의 보수화를 재촉했다고 분석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산조(野坂参三)는 천황제 타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1940년 연안에서 중국공산당과 합류한 후 1946년 귀국한 그는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천황제 전통을 인정했다. 점령 하 '평화혁명론'을 제시했던 노사카는 1950년 레드 퍼지(Red purge)를 피해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와 함께 재차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 일본 국내의 무장투쟁 노선을 원격 지시한다.[16] 그러나 전후부흥으로 좌우이념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공존하는 '1955년 체제'가 성립되면서 공산당의 혁명론은 의회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소비생활에 흡수되었다.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개헌에 반대한 일본공산당은 현실적으로 상징 천황제를 수긍한 셈이었다. 공산당에 이어 상징천황제에 반대한 세력은 신좌익이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미시마를 숭상하며 세력화한 신우익이 상징천황제를 비판하게 된 것이다.

상징천황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익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를 통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1970년, 노벨상 후보급의 작가인 미시마는 미국의 전리품처럼 장식되는 '상징 천황제'와 미국의 용병으로 전락한 '자위대'를 비판하면서, 소화유신의 정신을 잇는 '우익'의 죽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자위대에 침입하는 거사를 앞두고 보도진까지 미리 불러 놓았던 미시마는 자위대원들 앞에서 일본의 군대와 일본의 절대적 신격으로서 '천황제'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위대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천황 만세'를 외친 후, 자신의 사병대인 방패회(盾の会)에 소속된 청년과 함께 할복했다. 사병대를 조직하여 무술을 연마하고, 민족문화의 방위를 위해 거사를 도모한 '건전한 테러리스트' 미시마에게 감화를 받고 그의 사상을 승계한 것은 '민족파'의 신우익이다.[17]

1966년 신좌익의 학원 점령에 반대하여 일어선 신우익 학생조직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반전반핵, 반미평화'를 외치는 신좌익과 그들을 저지하는 우익 행동대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신좌익에 동화되어 갔다.[18] 신좌익 학생들이 일본공산

16) 1946년 초 미군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노사카는 중국 공산화 이후에 재차 중국으로 망명한 이래 반미 무장투쟁 운동의 배후에 존재했지만, 말년에 미국 스파이로 지목되는 등, 이중 스파이설이 회자된다. 小林峻一,加藤昭 (1993)『闇の男 野坂参三の百年』,文芸春秋.

17) 미시마의 민족문화 방위론에 대해서는 미시마 유키오 지음 ; 남상욱 옮김(2012)『문화방위론 :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자음과 모음.

18) 신우익 활동가인 스즈키 구니오는 전학련 학생들의 반전반핵 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 시민운동에 사상적으로 자극 받았다고 고백한다. 鈴木国男(2009)『愛国と米国』.平凡社. pp.186-18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당의 합법노선을 비판하여 혁명적 투쟁노선을 관철하려고 했듯이, 신우익 학생들도 기성의 반공 우익과 달리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혁명적 노선을 제시한다. '민족파'를 표방한 신우익은 상징천황제를 천황 통치의 자주적 전통의 상실로 탄식했고, 얄타-포스담 체제 타파를 통한 일본의 군사적 무장과 중립을 표방했다.[19] 신세대의 좌·우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포섭되어 있는 일본의 현실을 전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1970년대에 미일안보조약과 평화헌법 체제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은 봉인되었지만, 1989년에 즉위한 헤이세이 천황은 전후 평화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천황제의 핵심 의제는 과거 천황제의 전쟁책임보다 전후 일본의 평화 이미지에 대한 신뢰 구축과 미래의 평화를 책임지는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이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충돌하고 일본 정부가 보통의 '무장국가'를 서두르면서, 상징천황제가 구축한 평화 이미지조차 현실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전전과 전후를 관통하는 역사인식

만주국 건설로 영미제국과 등을 진 일본은 동아시아의 민족협화를 내세우며, 중국국민당에게 소련공산주의와 서구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안한다.[20] 그러나 중국 내에서 항일 민족주의가 고양하고 제2차 국공합작으로 중일연대에 실패하자, 일본은 중일전쟁의 전선을 확대한다. 제국의 범주에서 총력전 수행을 위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아시아의 식민지·제국 건설에 필요한 동아협동체,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아시아주의 이념을 지속적으

19) 안보투쟁 시기의 기성 우익의 활동과 '민족파 '학생(신우익)의 등장에 대해서는 堀幸雄 앞의 책, 제2장 참조. 신우익은 국가사회주의적 민족파 사상가인 고지마 겐시(小島玄之)가 제시한「우익운동의 기본정책」(1964)과도 통한다. 고지마의 우익사상과 정책에 대해서는 堀幸雄,앞의 책, pp.122-133.

20) 1935년 10월, 일본의 히라타(広田弘毅) 외상은 중국국민당 장제스에게 일본배척의 통제와 구미의존의 탈각, 만주국의 묵인, 공산세력의 배제 협력을 요구하는 '広田三原則'을 제시한다. 臼井勝美(2000)『日中戦争 : 和平か戦線拡大か』中央公論新社(新版),pp21-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제기했다.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영미제국의 일본 봉쇄로 궁지에 몰린 일본은 아시아를 거점으로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불렀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대동아 전쟁'은 미국이 명명한 '태평양 전쟁'으로 바뀐다.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독립・해방 전쟁>이라는 일본제국의 명분은 미국과 리버럴한 좌・우파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미국은 그 전쟁을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과 서구 민주주의의 대결>로 규정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보는 공산당은 일본의 전쟁을 <천황제 파시즘에 의한 아시아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다. 1955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소화사(昭和史)』는 공산당과 일본국민을 한편에 묶고, 공산당에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천황, 군부, 우익을 한편에 묶는 대립 전선을 그려냈다.[21]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공산당과 일본 국민의 '전쟁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았다. 국민은 오히려 군부의 침략전쟁과 미국의 원자탄 폭격에 희생당함으로써 아시아의 인민과 같은 운명을 산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는 일본낭만파의 대표적 평론가였던 가메이 가쓰이치로였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산물로 주목받은 『소화사』가 가메이 자신을 비롯한 일본인의 전쟁참여와 동요를 간과하는 '인간이 없는 역사'를 그려냈고, 천황제의 '충신-역적' 구도를 마르크스주의의 '진보-반동' 구도로 바꾸었을 뿐이라는 것이다.[22]

중국 공산화에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일본공산당도 반미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다. 미국은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강화조약을 서두르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한다.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전쟁 개입을 두려워한 일본 국민들은 '비무장 중립 노선'을 지향하며 미국과의 단독 강화에 반대했다. 공산당은 합법적 대중 공간에서

21) 遠山茂樹, 今井清一, 藤原彰(1955)『昭和史』, 岩波書店. 강좌파 역사학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치달은 역사를 해명한 문고판 역사서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역사학자들의 목적의식이 투영되었다.

22) 亀井勝一郎(2005)「現代歴史家への疑問」(초출『文芸春秋』1956.03),『現代史の課題』岩波書店. 가메이의 문제 제기로 벌어진 '소화사 논쟁'에 대해서는 조관자「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일본비평』2호(2010.02), pp.49-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본의 재군비에 반대하며 중립 평화주의를 줄곧 제기했지만, 비합법 공간에서는 게릴라전술을 구사했다. 1955년까지 일본공산당은 재일조선인의 '조국방위대'와 함께 3반(반미, 반이승만, 반요시다)의 공동 투쟁을 전개했으며, 당시 일본공산당의 지도부는 중국에 망명한 상태였다.[23]

일본의 재군비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은 한국전쟁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일강화조약의 체결에 임박하여, 경찰예비대의 창설은 물론, 1946년에 공직에서 추방당한 군부와 관료, 대륙낭인과 우익 단체의 관련자가 추방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전전에 사회주의자에서 천황제 민족주의자로 전향했던 아카오 빈(赤尾敏)은 공직추방에서 해제된 직후 대일본애국당(1951)을 결성하고 '친미우익'으로 활동한다. 미국과의 단독 강화에 반대하고 우익의 부활을 견제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전후 민주화의 역주행을 비판했다. 당시의 '우경화'는 '좌경화'와 함께 나란히 행진하는 과정을 보인다. 좌익 진영에서도 전후 일본의 평화적 민주화를 부정하고, 한국전쟁을 동아시아 공산화 혁명의 계기로 삼고자 미국에 대한 평화 공세를 펼친 이면에서 폭력투쟁을 서둘렀다. 결국, 우경화와 좌경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굴러간 것이다.

패전 직후에 미국을 해방군으로 맞이했던 일본공산당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미국을 <아시아 침략 전쟁> 세력으로 규탄했다. 1951년 2월 일본공산당 제4회 전국협의회의 결정문은 미국을 "세계 지배를 노리는 약탈적 침략 세력"으로 비난하고, 일본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말한다.[24] 곧이어 10월, 제5회 전국협의회에서 채택한 '신강령'의 제1항도 미국의 단독 점령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전쟁과 패전은 국민에게 파괴를 가져왔다. 일본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자의 예속 하에 놓이고, 자유와 독립을 잃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상실했다"는 것이다.[25] 당시 일본공산당은 미국에 의한 일본의 반공 기지화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억압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법적 평화운동과 대중적 문화운동, 그리고 비합법적 무장투쟁을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아시아 인민 연대'를 강조했다.

---

23) 조중일 인민연대 및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해서는 조관자「재일조선인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1945-1960」『일본사상』제22호(2012.06)

24) 公安調査庁(1953)『日本共産党・在日本朝鮮祖国防衛委員会関係等基本資料集』,pp.174-189.

25) 公安調査庁,앞의 자료집,pp.1-7, 40-4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후 좌파는 반미투쟁에서 일본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함으로써 중국, 북한과 공동 투쟁하는 약소민족의 지위를 일본 국민에게 부여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의 휴전과 전후 부흥으로 공산당의 무장투쟁 노선은 폐기되고, 평화는 진보진영의 전략적 가치만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상징 가치로 내면화된다. 물론, 이러한 평화적 이행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예속 하에서 주체성 회복을 위한 '민족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고도성장의 풍요와 소비사회의 탈정치화 속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집요하게 살아남았던 것이다.[26] 한편,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일본공산당이 분열하고 중국공산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27] 하지만, 동아시아 좌파 진영의 분열 속에서도 베트남 전쟁 등에서 반미-아시아의 민족통일전선(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일본 민족의 대미 종속 문제도 끊임없이 환기되었다.

전후에 좌파는 내부의 여러 분파로 갈려서 분쟁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핵전쟁과 국가독점자본에 반대하는 대의 앞에서 공동투쟁의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미국의 <아시아 침략>이란 역사인식은 서구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에 저항한 일본 제국의 <아시아 해방전쟁>이란 과거의 역사인식을 역설적으로 긍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전후 세대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와 아시아 해방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할 때, 그 저변의 문제의식은 전후의 좌파 담론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국으로 그리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만화『전쟁론』시리즈 3권은 전후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사관에 입각해 있다. 오늘날 넷우익의 <아시아 해방전쟁> 사관은 단순히 과거 일본제국의 역사인식을 복사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탈냉전으로 계급사관도 탈색하고 민족주의가 부흥하는 시대에, 전후의 역사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후 좌익의 반미 민족해방 사관을

26) 조관자(2009)「특집서평: '반미=아시아주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다」『일본비평』 창간호(2009년 8월호),pp.211-218.

27)宮本顕治(1966)「アメリカ帝国主義に反対する国際統一行動と統一戦線を強化するために」,『赤旗』(1966.02.04.). 일중 공산당의 관계가 악화한 대신에 일중우호협회가 중일교류를 주도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흡수한 것이다. 최근 젊은이들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태도는 전전에 조선과 만주에서 재직했던 관료들의 식민지근대화론에 영향 받은 것이라기보다, 전후 일본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좌파 담론에서 영향 받은 측면이 크다. 전후 좌익이 미국의 중국 및 북한 봉쇄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 문제를 옹호했듯이, 넷우익은 일본의 전쟁이 서구제국주의의 일본 봉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역설하기도 한다.[28] 이렇게 표면적인 좌우 대립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역사인식의 굴절은 거듭되고 있다.

좌·우익은 무력 충돌까지 벌였지만 전전 반미투쟁의 '원조'인 우익과 전후 반미투쟁의 '후예'인 좌익의 민족주의적 결합은 지속되었다. 전전에도 좌우파가 반미의 통일전선을 형성한 적이 있다. 좌우의 합작은 1938년 전시개혁 정책에서 실제로 시작된다. 오카와 슈메, 기타 잇키 등 중국에서 활동했던 혁신적 우익 사상가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의 관료와 자본가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천황제의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여 국가를 개혁하자는 논지를 펼쳤다.[29] 1923년에 출판된 이래, 우익의 경전이자 국가사회주의적 실천으로 인식된 「일본개조법안대강」도 관료, 독점재벌, 군벌을 비판하고 국민과 일체된 천황의 통치권을 회복하여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자본을 국가로 통일시키자는 내용이다.[30]

1930년대 후반의 우익 혁신관료는 사회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총력전 수행을 위한 집단주의 시스템을 구축했다.[31] 여기에 참여한 전향좌파는 '동아협동체론'을 제기하고 통제경제와 총동원 체제를 정비하는 등, 전시 개혁의 면면에서 좌우익 이념이 혼재된 흔적은 얼마든지 찾을 수

28) 安藤彦太郎等(1965)『日・朝・中三国人民連帯の歴史と理論』日本朝鮮研究所,pp.142-145. 한일회담 반대운동 차원에서 나온 이 책은 한국전쟁에 가담한 미국의 세계전략이 중국봉쇄를 제1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한일회담도 "기지(基地)일본과 전선(戦線)한국의 결합"으로 중국봉쇄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29) 오카와(大川周明)는 아시아 부흥론, 서구의 아시아 침략사와 아시아 신질서론을 저술했다.『復興亜細亜の諸問題』(1922);『米英東亜侵略史』(1942);『大東亜秩序建設』(1943).

30) 北一輝(1959)「日本改造法案大綱」(초출改造社,1923)『北一輝著作集』第2巻, みすず書房. 이 문헌은은 중일전쟁과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적 기조로 승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豊田穣(1996)『革命家・北一輝―「日本改造法案大綱」と昭和維新』講談社.

31) 혁신관료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통제경제를 주도하고 국가총동원법 등을 작성한 기획원(1935년 내각조사국의 후신)의 관료들을 말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다. 관동군 참모로 만주국에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는 중일전쟁의 종료를 위해 1938년 말부터 '동아연맹'의 구상을 구체화했다.[32] 조선인들도 참가한 이 연대조직은 조선의 자치와 만주국 및 중국의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하여, 동아시아의 경제 및 방위 공동체를 상정한 것이었다.

한편, 강좌파 마르크스주의 경제사가인 히라노 요시타로는 아시아 농촌의 수리시설, 공동노동 등 향토주의적 공동성(共同性, common)의 기반 위에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를 중국에 수출, 이식시키는 '대아시아주의'를 설파했다. 패전 직전인 1945년 6월에 출판한 『대아시아주의의 역사적 기초』의 서문에서 히라노는 "앵글로색슨의 세계 구질서 타개의 창시자"인 일본의 발전이 "예속 아시아를 해방하고 아시아의 손으로 동양에서 평화질서를 건설하여 대동아 제민족의 공존공영의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고 쓴다.[33] 히라노는 중국을 현지조사하고 대미전쟁을 통한 대동아공영권의 창출 의의를 강조했지만, 전후에 그는 공산당의 후광을 입고 평화운동가로 변신하여 중국, 북한, 재일조선인과의 연대에 앞장섰다. 우익 혁신관료는 전범으로 낙인찍혔지만, 전쟁에 협력했던 좌파는 시세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천황과 우익을 공격함으로써 전후에도 '진보적 지식인'의 이미지를 유지한 경우가 많다.

천황관의 차이에서 다시 분열했지만, 냉전시대의 좌익과 '민족파' 우익은 일본의 대미종속성 문제와 아시아의 반제 민족의식에서 서로 공명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탈냉전으로 미국패권이 세계질서를 주도하자 '반미보수' 담론이 아시아 공동체론과 함께 부흥했다.[34] 후술하듯이, 전전의 우익사상과 우익혁명가가 갖는 아시아주의의 진보적, 혁신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

32) 東亜聯盟協会編(1940)『東亜聯盟建設綱領』,東亜聯盟協会. 이시와라는 만주 지배를 위해 일본이 소련과 대립하고 미국과 최종전을 펼칠 것을 예상했지만, 중일전쟁의 수습을 위해 동아연맹을 주창하고, 대미전으로의 전선 확대에 반대했다. 도조 내각과 대립하여 1941년에 퇴역했고, 전범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시와라에 대해선 가타야마 모리히데 지음・김석근 옮김(2013)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33) 平野義太郎(1945)『大アジア主義の歴史的基礎』河出書房,p.3.

34) 이 시기의 상황은 조관자(2014)「반미주체화와 아시아주의의 이중변주: 세기 전환기(1990-2010) 일본의 사상」『아세아연구』156호(2014.06) 참조.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전후 일본의 좌익 활동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성과도 2000년대에 와서 더욱 활발하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아시아주의의 실질 내용은 미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정하거나,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 전환기에 유행했던 반미 구호와 아시아주의가 미국의 쇠퇴와 함께 퇴조하고, 일본의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내셔널리즘의 자존 논리와 감정 대립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고양된 풀뿌리 내셔널리즘은 냉전시대의 좌우 진영 간의 역사인식 갈등을 희석시키고 그에 따라 '좌우 합작'의 기능도 소진된다.

전후 세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억의 회로는 당대의 정치적 구도와 담론 흐름 속에서 거듭 변하는 모습이다. 1970-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 겨루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가, 1990-2000년대에 탈냉전으로 미국중심의 글로벌 일극체제가 유지되었고, 2010년 이후 중국이 부상하는 역사적 전기를 지나오면서, 역사인식의 양상도 꾸준히 변하고 있다. 고바야시의 만화를 보면서 자란 넷우익의 역사인식은 진보진영의 반미 민족주의에서 논리적 근거를 차용하면서도,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사죄의식을 일본의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바꿔친다. 경제대국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세대'는 과거의 전쟁을 아시아를 위한 '일본의 희생'처럼 인식하고, 역사수정주의를 공격하는 중국과 한국을 일본에 대한 '억압 세력'으로 미워한다. 이제 일본과 한국·중국 간의 역사인식 갈등은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건 정치적 충돌로 격렬히 부딪히고 있다. 좌우의 대립 구도는 내셔널리즘의 분쟁 구도에 흡수되고, 내셔널리즘의 감정 대립이 격화하면서 '역사적 진실'과 '보편적 윤리', 그리고 '경계 이탈의 자유'가 설 땅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Ⅳ. 우익사상의 출로와 '좌우합작'

패전 직후에 우익사상은 파시즘 이데올로기로 심판 받고 우익의 공직추방이 실시되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좌익의 무장투쟁과 대중적인 안보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익이 재등장했다. 우익 문제는 한반도의 친일파 문제와 유사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정치적, 사상적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1959년, 60년 안보투쟁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미일안보조약의 문제보다 만주국 관료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정치적 복권에 분노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35] 전후 민주주의 세대는 과거에 국책 사업에 관여한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거센 저항감을 드러냈지만, 역사적 부(負)의 유제(遺制) 및 연속성 문제는 국민국가의 제도화와 전후 아시아의 냉전사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인식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신좌익 운동이 잦아든 후, 총력전 연구, 관료 연구,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등에서 다양하게 밝혀졌다.[36]

안보투쟁 시기에 우익 조직은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를 결성하고 반공 투사로 활약한다.[37] '정치와 폭력단의 유착'으로 일컬어지는 현상에 대해, '반공 우익'은 정치에 대한 '비합법 봉사'는 겐지(源氏)와 헤이케(平家)의 역사에서 보듯이 무사집단의 본분이라고 주장한다.[38] 하지만 우익 테러는 그들의 언어적 무능력과 담론 권력의 부재를 반증한다. 실제로 전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우익 문필가들은 언더그라운드에 묻혀 있었다. 전시기 청년들에게 '일본낭만파'의 영혼을 불어넣었던 야스다 요주로는 역사의 패배자로서 "재야 언론의 확립"을 주장하는 처지였다.[39] 산케이 신문이 재계의 요청으로 보수 여론의 확립을 표방

35) リンダ・ホーグランド감독, 映画『ANPO』(2010)에서 반미 성향의 작품을 그리는 작가, 화가들의 증언이다.

36) 총력전 사회시스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山之内靖[ほか]編(1995)『総力戦と現代化』,柏書房. 경제사 연구는 岡崎哲二, 奥野正寛 編(1993)『現代日本経済システムの源流』,日本経済新聞社.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통제경제를 주도하고 국가총동원법 등을 작성한 기획원(1935년 내각조사국의 후신)의 관료들을 말한다. 요시다 시게루, 기시 노부스케도 이곳을 거쳐 갔으며, 전후 일본의 부흥에 기여한 관료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秦郁彦(1981)『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東京大学出版会; 秦郁彦 編(2001)『日本官僚制総合事典：1868-2000』東京大学出版会.

37) 우익의 전국조직인 全日本愛国者団体会議는 국체수호와 반공협동전선을 2대강령으로 제시한다. 우익계 지식인의 조직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1981년 무렵부터이다. 당시 종교계, 지식인, 퇴직 관료를 중심으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会議)가 결성된 후, 1997년에 国民会議로 개칭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장하는 국수주의 개헌론자이다. 각 조직의 홈페이지 참조.

38) 第二次『東大陸』編集部「戦後の右翼と現在-<右派民族派の再結集といわゆる〝新右翼〟」, p.11. http://www.asyura2.com/07/senkyo33/msg/851.html (2014년 5월 20일 접근)

39) 야스다는 대동아문학론의 주창자로 공직추방을 당한 후 복권한 1960년부터 고향(나라)에서 잡지 祖国을 발행했다. 保田与重郎(1988)「日本の独立と在野言論の確立」(祖国昭和二十八年三月号),『保田与重郎全集第27巻, 祖国正論』第一出版センター. 역사의 패배자라는 우익의 이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 것은 1959년 이후였다. 우파의 대표적인 월간지『諸君!』(1969년 창간) 과『正論』(1973년 창간)은 전공투의 학생운동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비로소 발행되었다.

우익의 '무사집단'이 주먹과 완력으로 전후 민주화의 법치주의를 보완하는 '비합법 봉사'에 나선 시기에, 신도 사상가인 아시즈 우즈히코(葦津珍彦)와 가도(不二歌道)를 전수하는 우익단체인 대동숙(大東塾)도 미일동맹에 반대했다.[40] 하지만 국수주의의 문화적 정통파 우익의 활동 목적은 국가 독립과 국체 수호에 있으므로, 좌파의 반미투쟁이 활발했던 시대에 그들이 반미운동을 공공연히 벌일 이유는 없었다. 정치 무대와 좌파 담론에서 우익의 이미지가 '정치 깡패'로 전락하는 와중에, 그러나 리버럴한 지식계에서 전전 우익의 정서와 행동 원리에 대한 학술 연구가 시작된다. 전후 부흥에 성공한 1950년대 말부터 우익사상을 자본주의 및 국가주의와 다른 동양적 전통과 맞닿은 농촌 공동체의 정서로 보는 학술적 관점이 형성된 것이다.

전쟁 말기에 학도병으로 전장에 나가 전우의 죽음에 부채의식을 갖게 된 세대들은 전후의 부흥에 안주할 수 없었다.[41] 일본인의 희생을 좌파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죽음'으로 묘사했지만, 국가에 대한 분노와 비판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제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익=전범'의 부정적 이미지와 다른 차원에서, 우익사상을 단순히 천황제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일본사상'의 한 범주로 영입하는 학술 연구가 시작된다. 우익사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서구적 합리주의로 접근할 수 없는 '민족정서',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농본주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향토주의' 등의 관점에서 포착된 것이다. 새로운 해석학적 시도는 이를테면 한국에서 지배 권력의 국가주의로부터 '저항 민족주의'를 분리

지는 1930년대 일본낭만파의 낭만적 이로니 개념과 연결된다.

40) 堀幸雄 앞의 책, 제3장.

41) 우익사상을 학술적 연구 대상의 궤도에 올린 하시카와 분조(1922-1983)는 1942년에 동경제대 법학부에 입학하고 재학중 근로노동원으로 히로시마의 식량사무소에 파견된 상태에서 1945년 6월에 농림성의 채용 시험을 앞두고 상경했다. 그 3일 후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다. 일본낭만파의 야스다 요주로의 영향을 받는 열렬한 황국소년이었던 하시카와는 전후에『潮流』의 편집자로서 마르크스주의에 가담하면서도, '우익 이데올로기'라는 꼬리표가 붙은 소화 초기의 내셔널리즘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학자적 임무로 삼았다. 하시카와에 대해선 그의 사후, 1984년에 출판된『昭和維新試論』에 실린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의 해설 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키고 그 의미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과 비슷하다.

초기의 대표적 연구자로 다케우치 요시미와 하시카와 분조를 들 수 있다. 1959년 다케우치는 미국식 근대화 구도에 종속된 일본의 사상적 주체화를 일깨울 정신으로 과거 일본낭만파의 민족주의와 '근대의 초극'론을 되새겼다.[42] 이러한 태도는 정작 일본낭만파의 핵심 멤버로 1941년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메이지 유신의 문명화를 전면 부정했던 가메이가 일본낭만파의 부활 필요성에 반대하고 근대적 과학기술을 예찬한 것과 대조된다.[43] 한편, 하시카와는 일본낭만파와 농본주의가 갖는 향토주의에 주목했다. 이러한 견해는 후지타 쇼조가 농본주의를 관료 정치에 반대한 "비정치적인 자주적 공동체 운동"으로 이해하고, 일본낭만파를 "시무(=정치)를 거부"하고, "아이로니의 세계에서 고고하게 반항"하는 "미적 감각적 체험"으로 파악한 것과 연결된다.[44] 마루야마(丸山真男)의 후배이자 제자이기도 한 후지타와 하시카와는 초국가주의의 원인을 전근대적 농촌공동체에서 찾았던 마루야마의 인식에서 비켜나가 '고향', '향토애' 와 '국가', '관료' 의 분리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45]

그런데 하시카와는 전전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향토의 상실'을 '민족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단지, 과거 좌익 운동에선 '노농동맹'의 슬로건만 있을 뿐 '향토=민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실천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46] 그러나 전전에 계급투쟁과 천황제 타도를 중시하던 공산당이 전후에는 오히려 '향토=민족문제'를 긍정하는 전략 전술을 취한다. 따라서 하시카와의 문제의식은 전전의 우익사상을 1950년대 일본공산당의 전략적 목표로 부각된 '민족해방'과 '민족문화'에 연결시킨 셈이다. 일본낭만파 연구서설을 발표한 이후 하시카와는 내셔널리즘과 향토애를 구분하는 이론적 작업에 천착하고, 조국애와 향토애가 국가 이념의 수준에서 접합하고 충돌하는 모순을 일

42) 竹内好(1979)「近代の超克」(초출『近代日本思想史講座 第7』1959),『近代の超克』富山房.
43) 다케우치와 가메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관자 앞의 논문,pp.38-51.
44) 藤田省三「天皇制とファシズム」,橋川文三(1960)『日本浪曼派批判序説』,未来社,p68-69에서 재인용.
45) 1970년 6월부터 73년 10월까지 '소화유신시론'을 발표한 하시카와는 마루야마가「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에서 추악한 무법자(폭력)로 인식한 대륙낭인의 사상을 일본민족의 '생명사상'과 '죄의식' 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橋川文三(2013)『昭和維新試論』講談社,pp.68-73.
46) 橋川文三(1960) 앞의책, pp.68-7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 사상사의 맥락에서 검토한다.[47]

중국혁명 이후, 코민테른이 1950년 일본테제에서 점령하의 평화혁명론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서자, 일본공산당은 1951년 '신강령'에서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민족해방 국민정부의 수립'을 제시했다. 신강령은 반미 무장투쟁만이 아니라, '민족적 국민문화운동' '민족적 국민과학 운동' 등의 문화투쟁도 중시했다.[48] 이러한 '민족적 국민문화운동'은 1955년 무장투쟁노선이 철회되고 동아시아 공산당이 일국적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된다.[49] 시대사상을 주도한 좌익의 문화운동에서 인민(계급)이 아닌 민족(국민)이 중시되는 가운데, 하시카와는 우익사상에서 '민족=향토'의 애국정서를 복원시켰다. 이리하여 좌우파가 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익 사상'의 재인식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우익추방에서 해제된 하야시 후사오는 '대동아전쟁 긍정론'을 제기한다. 하야시는 일본이 개항기부터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동아시아 100년 전쟁'을 수행했으며 일본의 전쟁은 패전으로 끝났지만, 1945년 이후 중국혁명,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대미 전쟁이 지속됐다고 말한다.[50] 그의 평론은 체계적 논리를 결핍했지만, 앵글로색슨족의 세계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전쟁사를 부각시키며, 그 맥락 속에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대동아전쟁'의 의미를 매겨두려는 의도를 갖는다. 즉, 1955년부터 비동맹권의 반제 민족주의 운동을 타고 고조된 '아시아 연대의식'에 기대어, 전후일본의 군사적 식민화와 전전일본의 영미제국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구제하고 복원시키려는 의도다.

좌익과 우익이 반제 민족주의에 대한 공감을 확대해가는 분위기에서 신도 사상가 아시즈는 좌우 양익의 대립구도가 아닌 서양문명과의 대립구도로 우익을

47) 橋川文三(1968)『ナショナリズム：その神話と論理』紀伊国屋는 독일의 내셔널리즘과 향토정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미토학(水戸学), 존왕양이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국학(国学) 사상을 분석한다. 소화유신에 관한 시론적 글쓰기도 내셔널리즘 연구의 연속적 결실이다.

48) 公安調査庁, 앞의 책, pp.30-100.

49) 日本共産党 (1957)「日本文化の擁護と発展のために」,『前衛』(1957.03.10)

50) 「大東亜戦争肯定論」은 『中央公論』 1963년 9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1964, 65년에 걸쳐 출판된 2권의 논집은 출판사를 바꾸면서 1968년, 1976년에 거듭 간행된 후, 반미 아시아주의가 부활한 2001년과 2006년에 재출간되었다.林房雄(1964)『大東亜戦争肯定論』,番町書房, pp.19-23,135-13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재규정한다. 1969년에 발표한 「우익정신의 계보와 현상」이란 글에서 '우익'을 '서구화'에 대결하는 사상적 실천 양식의 총칭으로 정의한 것이다.

> 우익이란 보수냐 급진이냐가 아니라, 오히려 '서구'에 대결하는 것에 한정해서 사용되어 왔다고 말해도 좋겠다. 일본에서는 서양문명에 원류(原流)하는 것은 보수든 반동이든, 우익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우익이란 급진적이든 반동적이든 '서양화'에 대결하는 것의 총칭으로 사용되었다.[51]

반서구적 일본정신으로 '우익'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적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1970년대에 등장한 마쓰모토 겐이치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하시카와와 다케우치의 계보를 잇는 마쓰모토는 우익 민족주의를 서구사상과 단절시키고, 아시아주의와의 연계를 심화시킨 것이다. 신좌익 운동의 자극으로 신우익이 등장한 시대에 경제학부를 졸업한 마쓰모토는 대학원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하고 1971년에『젊은 가타 잇키』를 저술하여 각광을 받았다. 1980년대부터 마쓰모토는 기타 잇기와 나카노 세이고 등을 통해 우익사상에 내포된 아시아 연대의 가능성과 좌절을 보여준다.[52] 그는 또한 '보수'와 '우익' 호칭을 구별하고 그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보수'는 자유주의(리버럴리즘)의 일본어 번역어이다. 즉, 대미 협력을 유지하며 근대 이후 일본의 국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합리주의적 성향의 지배 세력이 보수가 되고, 전범으로 심판 받은 우익은 '아시아주의의 원상(原像)'을 갖는 재야의 저항 세력이 된다.

마쓰모토는 일본의 권력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서구문명을 수입한 '리버럴=보수'가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배제와 통합을 반복하며 줄곧 권력을 유지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좌익-우익'과 '지배-저항'의 이항 대립 사이에 '보수'를 끼워 넣음으로써, '반미우익'이 아닌 '친미보수'에게 아시아 침략의 원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로써 도쿄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주범'으로 심판받고 전후에 테러리스트 이미지로 굳어진 우익을 구제하는 길이 활

51) 葦津珍彦(1969),「右翼精神の系譜と現状」『経済往来』(1969.09), 堀幸雄, 앞의 책,p.115 재인용.
52) 마쓰모토 겐이치 저, 권정희 역(2014) 「아시아주의자의 원상(原像):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의 경우」,『일본비평』10호(2014/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짝 열린 셈이다. 즉, 미국의 압력으로 근대국가의 문명개화를 추진한 '리버럴=보수' 세력이 아시아 침략을 주도했고, 아시아와 연대한 우익은 '지배=보수' 세력에게 이용당했다는 인식이 성립된다. 보수는 전후에 다시 미국과 제휴하여 지배구도를 장악했지만, 우익은 전후 민주주의에 의해 또 다시 거세당한 '역사의 실패자'들로 새롭게 기억되는 것이다.[53]

우익에 대한 일본인의 낭만적 이해는 우익 조직의 계율에서도 엿보인다. "시세에 아첨하지 않고,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이익을 찾지 않고, 허명을 추구하지 않고, 악명(惡名)을 감수하고, 일어나면 참간(斬奸)의 검을 휘두르고, 높고 고귀한 조국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익"이라는 것이다.[54] 대륙낭인의 정신적 지주로 통하는 도야마 미츠루(頭山滿)의 호가 입운(立雲)인 것도 세속의 기준을 초월하려는 우익의 '도의'적 감성을 보여주는 듯싶다. 물론 일본의 좌파담론과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서 '조국애'의 핵심은 "천황중심의 국가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55] 반면, 우익의 행동 원리를 일본적 특수성에서 찾으려는 일본의 연구자들은 '천황중심의 향토애, 민족애'를 합리적인 보수, 기술관료 (technocrat)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민족정서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 '보수'와 '우익'을 구분하면, 좌우 양익 구도에서 '우익 구하기'의 출로가 열릴 뿐 아니라, 좌우 양익의 심정적 공감대도 넓어진다. 자본주의 근대화와 근대국가의 제국주의화를 공격하는 측면에서 좌우익의 민족주의 사상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보수와 우익의 뿌리는 각각 서구적 근대(자본주의 이익사회)와 전통 사회(농본주의 공동체)로 갈린다.[56] 또한, 서양에서

53) 松本健一(1976)『思想としての右翼』第三文明社. 한글판: 마쓰모토 겐이치 저,요시카와 나기 역(2009),『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문학과 지성사,pp.17-18.

54) 荒原朴水(1966)『大右翼史』, 秀文社, 표지의 안쪽에 제시됨. 인용문의 번역은 한상일 (2014)「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일본비평' 10호(2014.02)에서 재인용. 야쿠자 연구로 유명한 저널리스트 이노 겐지는 전후 우익 폭력단 이미지를 불식하는 우익정신을 막말의 존왕양이론에서 찾아 일본 우익의 계보화를 시도했다. 猪野健治(1973)『日本の右翼 : その系譜と展望』日新報道.

55) 한상일의 일본 우익연구는 우익이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기여한 사실을 추궁한다.

56) 농촌 공동체가 초국가주의에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정신구조를 극복하고자 했던 리버럴리스트 마루야마 마사오는 전공투에 의해 '전후 민주주의의 기만적 지배구조를 사상적으로 지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계급투쟁사관을 빌려온 좌익도 결국 보수와 같은 외래 사상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해할 때, 우익 사상만이 개항 이전부터 자기 전통에 뿌리내리고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는 재야의 저항 세력이자 민족주의의 정수로 기억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우익사상을 반미 민족주의와 아시아주의와 관련시켜 재해석하는 담론은 전후부흥 이후 리버럴한 학술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대중화된다. 1960년대 초반까지 좌익에게 우익 이데올로그로 비판 받기도 한 다케우치였지만, 2000년대에 그의 이름은 아시아주의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게 된다. 반자본주의・ 반서구적인 중국혁명을 '제3의 근대화'로 높이 평가했던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주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리즘을 극복하는 지역주의의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되었고, 한국과 중국에서도 각광을 받았다.[57] 200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하게 저작 활동 중인 마쓰모토의 일부 저작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58]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환기된 아시아주의는 일본 민족주의를 재정립하는 흐름을 형성하면서 면면히 흐르다가 세기 전환기의 일본과 한국에서 반미의식과 함께 또 다시 분출되었던 것이다.

V. 우익사상의 역사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시카와 분조에서 마쓰모토 겐이치에 이르면서 일본의 우익사상은 서구적인 자유주의나 합리주의, 보수주의와 다른 특수성을 띠면서, 존황사상, 농본주의, 향토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둔 '일본의 민족사상'으로 정립된다. 하야시가 '동아시아 100년 전쟁'을 논했을 때, 우익의 뿌리는 이국선의 출현으로 일본의 위기

한 어용학자'로 공격당한다. 반면, 우익 민족주의의 부활을 꿈꾼 미시마 유키오는 전공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의 대조적 사례에서도 좌우 양익이 보수와 갈라지는 지점이 확인된다.

57) 다케우치의 중국 소개자이기도 한 쑨거의 저서가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孫歌 저,윤여일 옮김(2007)『다케우치 요시미라는 물음 : 동아시아의 사상은 가능한가』,그린비.

58) 1986년(河出書房新社)에 출판된 마쓰모토의『北一輝伝説』은 2004년(岩波書店)에 수정본이 간행되었다. 마쓰모토 겐이치 저, 정선태 ・오석철 역,『기타 잇기-천황과 대결한 카리스마』, 교양인,201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식이 고양되면서 전개된 해방(海防)론과 존왕양이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배논리로서의 국가주의와 저항논리로서의 민족주의를 구별하던 시대정신 속에서, 우익의 원조는 메이지의 국가권력과 대립했던 재야의 사이고 다카모리로 추앙되곤 했다. 우익사상의 기원은 '우익'이란 언어조차 없었던 막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존왕양이 운동에서 메이지 유신의 관료(보수)세력과 유신의 지배 권력에서 소외된 재야세력이 모두 배출되었고, 재야의 정한론과 자유민권운동도 국권운동에 통합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59] 결국, 우익과 보수의 뿌리는 다르지 않고 그 몸통은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카와가 국가와 향토를 구별하고, 마쓰모토가 우익과 보수를 구별한 것은 그들이 살아간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하시카와는 지배 권력으로서 국가를 부정하는 전후민주주의가 고양된 시대(1950-70년대) 분위기에서 우익사상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중정서에 뿌리내린 향토주의를 구제하고자 했다. 이후, 마쓰모토가 활동한 시대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에서는 아시아 지역질서를 주도하려는 미래지향적 의지가 충만했던 만큼 아시아에 대한 속죄의식과 연대의식도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반미 아시아연대를 통해 일본의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싶은 민족주의자 마쓰모토는 아시아주의가 원래 침략보다 연대를 추구한 사상이었음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익사상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아베와 같은 정치가들의 신념에 자신감을 넣어 주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를 대변하기도 한다. 우익 연구의 성과가 1990년대 말부터 대중화의 흐름을 타면서 우익 정서는 국가-관료-정치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강한 국가'를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으로 분출한 것이다. 풀뿌리 민족주의와 향토주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와 미일FTA와 같은 글로벌리즘에 저항한다. 2000년대에

59) 정한론자이면서 재야 민권파의 영웅으로 꼽히는 사이고 다카모리까지 포함하여 이들은 일본의 '주권선' 보호에 필요한 조선과 만주의 경영 문제를 일찌감치 제기한 군사적 책략가들이다. 대륙낭인의 지도자로 꼽히는 도야마 미츠루(頭山満)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정한론과 자유민권운동을 대표하는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교류했다. 이들의 교류관계에 대해선 頭山満(2008)『アジア主義者たちの声 Vol.1 玄洋社と黒竜会, あるいは行動的アジア主義の原点』.書肆心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본정부는 평화헌법을 비판하는 우익과 미일동맹을 비판하는 좌익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냉전으로 고조된 일본의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의 '사죄외교'를 수정하고 일본 국내의 우익적 민족정서가 요구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으며, '건전한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풀뿌리 민족주의는 전후민주주의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군사대국화가 진전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화에서 발단한 채 제국일본의 해체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던, 해묵은 역사인식의 갈등과 영토분쟁이 더욱 고조되었다. 아시아 '연대'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국가적 위기의식이 비대해진 일본에서는 더 이상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분리할 필요성이 옅어진다. 미국의 쇠퇴가 자명하고 일본의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이 강조되는 마당에 보수와 우익을 구별할 설득력도 적어진다. 중국과 한반도가 약체였던 당시 과거의 우익은 아시아의 '부흥'에 기여할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지만, 이제 아시아의 성장에서 독점적 주도권을 상실한 일본에서 우익 정서는 내향적 보호 본능과 강한 국가에 대한 욕망을 응축시키고 있다.

상실감의 깊이와 비례하여 '강한 국가'를 욕구하게 된 현재적 상황에서, 메이지 유신의 집권세력과 대립한 재야의 우익 원조인 사이고 다카모리의 매력도 한 풀 꺾인 듯하다. 그 대신에 오늘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의 동력과 인재를 모두 길러낸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우익사상의 원조로 새롭게 부각된다. 유학, 국학, 난학을 모두 흡수한 요시다는 서양문명기술과 병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그가 운영한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는 존왕양이운동을 주도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유신의 지도자로서 신화적 존재가 된 요시다는 미일수호통상조약(1958)에 분개하여 막부 토벌을 꾀하다가 30살에 참사를 당한, '광적인 카리스마'까지 겸비한 인물이다.[60] 이러한 요시다가 우익사상의 원조로 새롭게 부상한 배후에는 '강한 패기'를 회복하려는 군중의 사회적 심리가 작동한다. 최근에 요시다의 어록을 현대어로 엮어낸 『각

60) 요시다의 대외관과 정한론에 대해선 박훈(2010) 「吉田松陰의 대외관」,『동북아역사논총』 30호. 이원우(201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征韓論' 문제 : 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 제47집 (2011. 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오를 닦는 방법』은 2013년 5월에 출판된 후, 2014년 1월 현재 13쇄 20만부가 팔렸다. 이 책의 선전 문구는 "불안에 살 것인가, 이상에 죽을 것인가" (不安と生きるか, 理想に死ぬか)이다. "잃어버린 20년"을 살아온 일본인의 일상에 패기를 불어넣는 제언이자, 국가적 이상을 위해 결의하자는 충언이 숨어있다.[61]

우익의 사상적 계보와 우익사상의 역사화를 위한 학술 작업은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그 역사화의 심층 심리에는 메이지 유신의 혁명적 패기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전후체제를 탈각할 새로운 '민족혁명'을 꾀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결정론적 사고로 일본 우익사상을 비평하거나 거꾸로 일본의 우경화를 선동하는 역효과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본의 집단적 기억을 타고 마그마처럼 흐르는 우익 정신은 막부 말기와 메이지유신에 이어 1930년대 국제연합 탈퇴 후에 쇼와유신을 실천한 세력에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때, 우익사상은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여 '국가개혁'을 주도하는 사상적 명맥이자 실천적 활화산을 의미하게 된다. 우익 단체나 우익 정당의 이름에 붙는 '유신'에서 국가의 운명을 관장한다는 그들의 사명감이 엿보인다.

우익사상의 역사화는 존왕양이 운동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행한 일본 근대사를 '민족주의'의 사상사 계보 안에 재정립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맥락에서 좌우 양익의 민족주의를 포섭한 '일본(혁명운동사)사상'의 전체적 체계가 그려질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메이지와 쇼와 시대에 재야의 저항세력으로서 활동한 우익의 '불온한 기운'은 국가개조의 혁신적 기운으로 주창되었다. 그러나 그 혁신 기운은 반드시 전쟁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 치명적인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에 일본 국민의 다수는 '우익사상'의 역사화를 수용하면서도, 전후체제의 개혁을 서두르는 '우익'의 정치세력화를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현대 일본인들은 우익사상의 긍정적 재해석을 반기면서도,[62] 그 대중화와 정

61) 池田貴将(2013)『覚悟の磨き方 超訳 吉田松陰』サンクチュアリ出版. 아마존의 독자서평을 보면, 우익사상의 정서가 강한 독자나 막말운동사의 열혈팬들은 오히려 이 책이 현대어로 각색한 '자기계발' 어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62) 쓰루미 슌스케는 하시카와가『辺境』에 1970년부터 3년간 연재한『昭和維新試論』이 그의 사후 1984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했을 때의 감상을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다음과 같은 표현, "이것은, 전후에 어느덧, 10년이나 20년 된 값싼 술만이 아니라, 40년짜리 맛난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카프카처럼 그로테스크한 맛의 진실을 일본의 전후가 이제야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나 할까"(橋川文三(2013), p.304)를 인용하면서 토로한다. 쓰루미의 감회에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치화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는 심층 심리와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일본 우익사상의 역사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면서 일본인들과 함께 분쟁으로 치닫는 '불온한 기운'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자민족 중심의 내향적 역사인식을 넘어서는 소통 능력이 이 지역의 미래 질서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KYOBO 교보문고

드러나듯이, 소화유신의 주체를 우익=전범으로부터 구제하는 하시카와의 작업은 60-70년대에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그의 사후에 비로소 전체적 체계를 드러내었고, 그의 저작은 2000년대에 더욱 활발하게 재출간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마쓰모토 겐이치, 요시카와 나기 역(2009)『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문학과 지성사.

_____, 정선태 ·오석철 역(2010)『기타 잇기-천황과 대결한 카리스마』, 교양인.

_____, 권정희 역(2014)「아시아주의자의 원상(原像):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의 경우」『일본비평』10호(2014/02).

미시마 유키오 지음 ; 남상욱 옮김(2012)『문화방위론 :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음과 모음.

박훈(2010)「吉田松陰의 대외관」『동북아역사논총』30호.

이원우(2011)「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征韓論' 문제 : 2011년도 검정합격본을 중심으로」『역사교육논집』 제47집 (2011. 8).

조관자(2010),「제국일본의 로망과 동아시아 민족주의」『일본비평』2호(2010.02)

_____(2010),「'사회과학·혁명논쟁'의 네트워크 : 일본자본주의논쟁 (1927-1937)을 중심으로」『한림일본학』 제17집 (2010. 12)

_____(2012),「재일조선인운동과 지식의 정치성, 1945-1960」『일본사상』제22호 (2012.06)

_____(2014),「반미주체화와 아시아주의의 이중변주: 세기 전환기(1990-2010) 일본의 사상」『아세아연구』 156호(2014.06)

한석정, 노기식(2008)『만주 동아시아의 융합 공간』,소명출판

浅羽通明 (2006)『右翼と左翼』,幻冬舎.

荒原朴水(1966)『大右翼史』, 秀文社.

池田貴将(2013)『覚悟の磨き方 超訳 吉田松陰』 サンクチュアリ出版.

猪野健治(1973)『日本の右翼 : その系譜と展望』日新報道.

安藤彦太郎等(1965)『日·朝·中三国人民連帯の歴史と理論』日本朝鮮研究所.

亀井勝一郎(2005)「現代歴史家への疑問」『現代史の課題』,岩波書店.

北一輝(1959)「日本改造法案大綱」(초출改造社,1923)『北一輝著作集』第2巻, みすず書房

公安調査庁(1953)『日本共産党·在日本朝鮮祖国防衛委員会関係等基本資料集』.

小林峻一,加藤昭 (1993)『闇の男 野坂参三の百年』,文芸春秋.

小林よしのり(2000)「あとがき 羞恥からの成長」,『ゴーマニズム宣言9』, 幻冬舎文庫.

コミンテルン 編,世紀書房 訳編(1951) 『日本共産党テーゼ : 22年,27年,政治テーゼ,32年,50年テーゼ』, 世紀書房.

臼井勝美(2000)『日中戦争 : 和平か戦線拡大か』, 新版;中央公論新社.

鈴木国男(2009)『愛国と米国』,平凡社.

秦郁彦(1981)『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学出版会.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滝沢誠(1971・1996),「権藤成卿」『松岡正剛の千夜千冊: 歴象篇0093夜』,ぺりかん社.
竹内好(1979)「近代の超克」(초출 『近代日本思想史講座 第7', 1959),『近代の超克』, 富山房.
東亜聯盟協会編(1940)『東亜聯盟建設綱領』,東亜聯盟協会.
遠山茂樹, 今井清一, 藤原彰(1955) 『昭和史』, 岩波書店.
頭山満(2008)『アジア主義者たちの声 Vol.1 玄洋社と黒竜会, あるいは行動的アジア主義の原点』,書肆心水.
中村薫(1984)『加藤完治の世界 : 満洲開拓の軌跡』, 不二出版.
日本共産党 (1957)「日本文化の擁護と発展のために」『前衛』(1957.03.10.)
橋川文三(1960)『日本浪曼派批判序説』,未来社.
_____(1968)『ナショナリズム : その神話と論理』紀伊国屋.
_____(2013)『昭和維新詩論』講談社.
林房雄(1964)『大東亜戦争肯定論』,番町書房.
平野義太郎(1945)『大アジア主義の歴史的基礎』河出書房.
堀幸雄(1993)『戦後の右翼勢力』,増補版;勁草書房,
増島宏, 高橋彦博, 大野節子(1969)『無産政党の研究 : 戦前日本の社会民主主義』法政大学出版局.
宮本顕治(1966)「アメリカ帝国主義に反対する国際統一行動と統一戦線を強化するために」,『赤旗』(1966.02.04.).
保田与重郎(1988)「日本の独立と在野言論の確立」(祖国昭和二十八年三月号),『保田与重郎全集第27巻, 祖国正論』第一出版センター.

❖ 투고일 : 2014.06.30
❖ 심사완료일 : 2014.07.25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일본 우익사상의 부흥과 '좌우합작'

조관자

전후 일본에서 우익은 어떻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의미 전환을 꾀하며 부흥하게 되었는가. 이 논문은 '좌우합작'이란 새로운 관점에서 전후 일본의 우익사상이 부흥하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좌우합작'이라는 용어는 좌우 양익의 현상적 대립과 배제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 포섭의 관계를 포착한 개념이다. 전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볼 때, 1945년 이전에 반미투쟁의 '원조'인 우익과 1945년 이후에 반미투쟁의 '후예'인 좌익의 결합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 글은 192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활동한 농본주의자와 아시아주의자들에게 나타난 '좌우합작'의 면모를 고찰한다. 또한, 전후에 하시카와 분조, 하야시 후사오, 아시즈 우즈히코, 다케우치 요시미, 마쓰모토 겐이치가 전후의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우익사상을 역사화 하는 과정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Key Words : 하시카와 분조, 하야시 후사오, 아시즈 우즈히코, 다케우치 요시미, 마쓰모토 겐이치, 반미 내셔널리즘, 좌우합작, 우익사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The revival of Japanese right-wing thought and "left-right collaboration"

Jo, Gwan-ja

In this paper,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revival of postwar Japanese right-wing thought is discussed from the new perspective of "left-right collaboration." Despite the appearance of conflict, the right and left-wings have been deeply imbricated. In postwar Japan, there were violent clashes between what we call the left and right-wings. But if we look carefully at the pre- and postwar periods, we can see that the postwar left-wing's anti-American struggles descended from the same sentiment in the prewar right-wing. This connection existed during the 1920s and 1930s, in the formation of the emperor system, and through the American occupation,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During this time, right-wing thought changed and kept its meaning relevant.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change and adaptation to the times will be analyzed through the writings of Hashikawa Bunzô, Hayashi Fusao, Ashizu Uzuhiko, Takeuchi Yoshimi, and Matsumoto Kenichi.

Key Words : Hashikawa Bunzô, Hayashi Fusao, Ashizu Uzuhiko, Takeuchi Yoshimi, Matsumoto Kenichi, anti-American nationalism, left-right collabora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